

국가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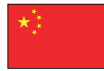
미 국

“닭을 빌려 드립니다... 계란 생산해 드세요”

미국에서 전문 대여 업체에서 닭을 빌려와 집에서 직접 계란을 생산해 먹는 서비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NBC방송은 ‘렌트 더 치킨’ 등 닭과 함께 닭장 등 필요한 설비를 함께 대여해주는 업체들이 호황을 맞고 있다며 최근 보도했다. 렌트 더 치킨은 400달러(약 47만원)에 1달간 두 마리의 살아 있는 닭과 닭장 하나를 빌려준다. 음식과 물, 100파운드(약 45kg) 분량의 모이도 팔려 제공된다. 600달러(약 71만원)에 닭 네 마리와 좀 더 큰 닭장 하나를 대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건강에 초점을 둔 고객들의 문의는 늘어나고 있다. 쥘 탐킨슨 렌트 더 치킨 공동 창업자는 2016년까지 20개 지역과 제휴 계약을 맺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는 12개 지역과 손을 잡았다. 탐킨슨 창업자는 “우리는 자신들이 먹는 음식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매릴랜드주에 기반을 둔 ‘렌트 어 쿵’에도 손님이 늘었다. 타일러 필립스 렌트 어 쿵 대표는 올해 성수기에는 한 달에 55개의 닭장을 대여해 줬다고 밝혔다. 3년 전 같은 기간 7개에 불과했던 것이 대략 8배로 뛰었다. 사업자들은 최근 수요 증가는 일시적 현상은 아닌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헤럴드경제]

맥도날드 닭고기 납품 농장 ‘닭 학대’ 파문

미국의 유명 햄버거 체인 맥도날드에 닭고기를 납품해온 농장이 닭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동영상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동물보호단체가 미국 테네시 주의 농장에서 찍은 몰래카메라 영상을 보면 못이 박힌 막대로 닭을 때리거나, 닭 목을 밟아 부러뜨리는 모습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 농장은 맥도날드에 닭고기를 납품하는 업체 타이슨 푸드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보호단체는 이 농장에서 맥도날드에 너겟용 닭고기를 납품했다고 밝혔으며, 맥도날드는 햄버거나 샌드위치에도 이 농장 닭고기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맥도날드와 타이슨 푸드는 공동으로 닭 학대 사건에 대한 조사에 나섰으며, 해당 농장과의 계약은 해지했다고 밝혔다. [YTN]



중 국



‘병아리 화물차’ 전복에 1만마리 우수수...좁은 운전자로 난리

중국의 한 고속도로에서 병아리 운송차량 전복사고가 발생하는데 차를 세우고 병아리를 훔쳐 달아나는 운

전자들이 포착돼 네티즌들을 씩씩하게 하고 있다. 중국 인민망 등 외신들에 따르면 정오쑤 산둥(山東)성 빈저우(濱州)의 한 고속도로에서 병아리 운송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화물차에서 쏟아진 병아리 떼로 주변은 순식간에 노랗게 변했다. 당시 차량에는 병아리 약 1만마리가 실려 있었으며, 화물칸이 뒤집히자 실려있던 병아리들이 일제히 도로와 인근 수풀로 쏟아졌다. 운전자들은 길바닥에 구르는 병아리를 보고 즉시 차를 세웠다. 현금을 줍거나 도랑에 빠진 트럭에서 수박을 산 훈훈한 선례를 토대로 이들이 병아리를 주워주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운전자들은 병아리를 쓸어 담기 바빴다. 이들은 차에 있던 상자에 병아리를 주워담고는 자리를 떠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이 도착했지만 워낙 주변이 아수라장이라 운전자들을 제지할 수 없었다. 한편 화물차에 실린 병아리들은 돈으로 환산하면 5만위안(약 91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

이 동네 마트에서 구매한 피쉬 케이크를 요리하려던 중 식품 위에 죽은 병아리 2마리를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그녀는 알루미늄 포일을 벗긴 순간 음식 위에 무언가 있어 자세히 봤고, 식품 위 죽은 병아리 2마리의 사체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문제의 피쉬 케이크는 유럽에서 제2의 월마트로 급부상하고 있는 독일계 슈퍼마켓 체인 알디(Aldi) 상점에서 구매했다. 레인은 식품 개봉 후 알디 홈페이지를 통해 항의를 접수했고 알디 측에서 곧바로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알디는 사죄와 함께 해당 식품을 모든 상점에서 리콜하겠다고 밝혔다. 알디 대변인은 “우리는 이번 사태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조사에 착수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고 말하며 “우리는 고객한테 사과했고 현재 이번 식품을 모든 상점으로 부터 리콜했으며 남은 재고품들도 다 버릴 것이다”고 밝혔다. [뉴시스]



호 주

음식 안에 웬 병아리가? ‘피쉬 케이크(fishcake)’ 안에 병아리 사체 발견



호주 시험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산 피쉬 케이크(fish cake, 영국의 대표적 음식) 속에 식품 위 병아리 사체를 발견했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호주 시험에 거주하는 미술 교사 로셀 레인(27)

호주 시험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산 피쉬 케



파푸아뉴기니

닭 잡아 먹는 ‘앵무조개’ 30년 만에 발견

일명 닭 잡아 먹는 '희귀조개'가 30년만에 발견돼 관심이 쏠린다. 미국 워싱턴대 연구팀은 한 매체에 “지난 7월 파푸아뉴기니 섬 근처 남태평양에서 30년 만에 앵무조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바다 500~1,300피트 아래에 미끼로 둔 닭과 물고기가 앵무조개의 먹이가 된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앵무조개는 무려 5억 년 동안 생존해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린다. 이번에 발견된 앵무조개는 가장 희귀한 ‘알로노틸러스’ 종이다. [매일경제] 양계